

싸목싸목 남도한바퀴 - 나주

목사내아·금성관...2000년 역사 타고 문화 속으로

◇나주읍성, 시간 속을 걷다=광주에서 국도 1호선을 따라 나주에 들어서면 옛 4대문중 하나인 동점문(東漸門)이 시야에 들어온다. 일제강점기에 헐렸던 것을 지난 2006년 9월에 복원했다. 적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성문 앞에 반원형의 웅성(甕城)을 둘러친 것이 특이하다.

나주여행은 마흔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까마득하게 오래된 2000년 역사의 속살을 헤집는 시간여행이다. 두발로 걸어가며 나주목(牧)문화관을 비롯해 인접한 목사내아(금학현), 금성관을 차례로 거쳐 '호남의 행정중심지'였던 나주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

나주목문화관에서는 '나주읍성 둘러보기' 등 6개 공간을 돌아보며 나주의 역사변천과 인물, 읍성내 관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접할 수 있다. 옛 나주읍성 모습은 축소모형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보듯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 웅장한 '나주목사 행렬행사' 역시 70여 명의 인물을 한지 인형으로 생생하게 재현해 눈길을 끈다.

'금학현'(琴鶴峴)으로 불리는 목사내아(內衙)는 나주 목사가 거처하던 살림집이었다. 성안에 있던 관아건물 가운데 '금성관'(객사)과 '정수루'(동헌 출입문)와 함께 원형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현재는 전통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선정을 베푼 목민관으로 유명한 '학봉 김성일 방'과 '독송 유석증 방', 안·의·예·지실이 마련돼 있어 숙박을 할 수 있다.

마당에는 호두나무와 뽕나무가 심어져 있다. 담장에는 '벼락 맞은 팽나무'가 여전히 강한 생명력을 보이고 있다. 금학현을 찾은 관광객들은 기적적으로 소생한 팽나무 앞에서 소원을 빌기도 한다.

금성관(보물 제2037호)은 나주읍성 한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금성관에 궁궐을 상징하는 권패(關牌)와 임금을 상징하는 전패(殿牌)를 모셔놓고 매달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대궐을 향해 망배를 올렸다고 한다. 금성관 좌우 부속건물인 동익헌·서익헌은 사신이나 중앙관리들이 묵는 객사로 활용됐다.

금성관 북쪽 모퉁이에 자리한 '사매기 째간한 박물관'은 나주여행에서 지나칠 수 없는 공간이다. 곰탕집을 운영하는 이상덕 관장이 정성스레 모은 '옛날 나주 사매기' 사람들이 사용했던 귀중한 생활용품들로 가득하다. '째간한'은 '작다'라는 의미의 전라도 말이다.



나락을 찢던 도정공장에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남도 정미소(南道正味所)'. <나주시 제공>

입구에는 나주극장이 1990년대 문을 닫기 전 마지막 무대인 영화 '돌아오기'(1986년 작) 전단지 가 붙어있다. 내부에는 '박물관 보물 1호'라는 타이틀을 붙인 헤어핀 김정고무신과 반진고리를 비롯해 나주곰탕을 끓일 때 사용한 '황동 가마솥'과 목욕수 무개를 짤 때 쓴 '목화 저울', 삼베를 짤 때 사용한 '부티'와 '베 바다', 대청문짜를 들어 올려 고정하는 '박쥐 들쇠', 나주 유일의 조선시대 군사 훈련교본, 가난한 나주선비가 사용했을 서안(書案)과 천자문 등 나주의 오랜 역사가 배어있는 손때 묻은 물건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금성관에서 나주향교까지는 500여m 거리. 거란족 침입때 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나주로 몽진(蒙進)한 고려시대 현종과 연관 있는 '사매기' 길을 싸목싸목 걸으며 나주 역사를 음미하기에 제격이다.

나주향교 건물배치는 앞에 제사공간을, 뒤에 학습공간을 둔 '전묘후학'(前廟後學) 형태이다. 대성

전(보물 제 394호) 일부 벽체에 쓰인 혹은 공자 교향인 중국 산둥 성 곡부에서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다. 유학을 강학하던 명륜당과 유생들이 글공부를 하며 유숙하던 서재(西齋)를 돌아본다. 500년생 비자나무 한 그루가 푸르다.

◇서성문에서 만나는 125년 전 동학의 역사=나주향교와 이웃하고 있는 북학문화공간 '39-17 마중'에서 나주를 중심으로 한 근대사와 마주하게 된다. 바로 동학 농민혁명이다.

1894년 음력 4월 27일 전주성을 함락한 농민군은 여세를 몰아 나주성 주변을 포위한다. 당시 농민군은 나주지역을 제외한 호남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다. 7월 1일부터 순화중과 최경선, 이방안, 이화진 등이 이끄는 농민군들이 나주성을 본격적으로 공격한다. 4개 문 가운데 서성문(西城門)을 집중 공략했다. 그러나 농민군의 수차례에 걸친 총공세에도 끝내 성문을 열지 못했다. 이에 8월 13일 지도자 전봉준은 10여명의 부하를 데리고 나주성에

들어가 나주목사 민중열을 직접 만나 '나주성을 넘기라'는 담판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 당시에 수성군 도통장(都統將)을 맡은 난파(蘭破) 정석진(1851-1896)이라는 인물이 있었다. 농민군 평정하는데 큰 공을 세운 그는 해남군수에 제수된다. 이듬해 11월 개화파 김홍집 내각이 단발령을 내리자 1896년 2월 정석진은 나주유림과 함께 의병을 일으킨다. 그러나 관군에 체포돼 남문 밖에 위치한 전라우영(全羅右營)에서 처형된다.

난파의 큰아들인 정우찬이 1915년 선전을 추모하는 뜻에서 난파정을 재건축했다. 그리고 난파의 손자인 정택중은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1939년에 목서원을 지었다. 한옥과 일본, 서양식을 절충해 만든 독특한 구조이다.

나주 아픈 역사를 머금은 이곳은 2017년에 전주 출신 사업가 남우진 씨가 한옥속박과 공연, 전시를 할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과거 쌀 창고였던 카페에서는 커피 외에 나주 배와 나주 딸기를 이용한 차를 판매한다. '39-17 마중'과 서성문은 지척이다. 나주시의 나주읍성 4대문 복원사업에 따라 지난 2018년 서성문이 옛 모습을 찾은데 이어 최근 성벽 하단 일부가 제모습을 드러냈다. 폭 111만만이다.

◇도시재생 통해 나주 근·현대 역사 살려내=200여m 길이의 서성문 성벽 하단이 깔끔하게 정비돼 있다. 팽나무 고목을 지나 나주천을 따라가다 보면 '나빌레라 문화센터'에 닿는다. 비단실을 생산하던 전남 최대의 잠사(蠶絲)공장이 폐산업시설 재생사업을 거쳐 문화예술 창작발전소로 탈바꿈했다.

나주시내 도시재생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11월 개관한 '남도 정미소(南道正味所)'는 본래 1920년 개 만들어져 나주평야에서 수확한 나락을 찢어 도정하던 곳이었다. 도시재생을 통해 정(情)과 맛(味), 웃음(笑)이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옛 금남금융조합(고조현 외과)옆에 위치한 나주 밀레날레 마을미술관 1관은 나주읍성을 무대로 펼쳐진 작가들의 작품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2016년 처음 열린 '밀레날레'는 1000년을 의미하는 '밀레'(Mille)와 '비엔날레'(Biennale)를 합쳐 만든 말로, '전년에 한번 열리는 행사'를 의미한다. '우리네 야고(이야기) 좀 들어보소'(김연희 작가)를 포함해 22개의 작품들이 시내 곳곳에 설치돼 있다. "애기(이야기) 보따리'와 '애기 곳간' 열쇠를 꺼내오. 번호 키를 가지고 가서 그 번호 문을 열면 애기 거리가 나오면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 얘기를 나누는 거죠."

이진나 마을미술 해설사의 설명이다. 벽에는 책보에 잘 싸인 70여개의 '애기 보따리'가 부착돼 있다. 방문자는 많은 보자기 가운데 하나를 마음대로 고른다. 보자기를 풀어보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열쇠가 나온다. 직접 해보니 인문학자와 미술작가가 함께 만들었다는 '자미산 할미바위' 이야기 자료가 나왔다. '밀레날레' 작품을 하나하나 찾아보는 읍성여행도 좋을 듯하다.

/글:사진=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1895년 동학 농민군의 피물음이 배어있는 서성문.



나주목(牧)문화관에 전시돼 있는 '나주목사 행렬행사' 축소모형.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앱 주문 (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우리 뷔페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2월17일 오픈!! 청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 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개성전통한방삼계탕
서구 치평동 케이월하이빌 1층 삼계탕전문점
포장가능합니다.
☎ 062)383-3454, 010-2106-0424

남악장례식장
전남 무안군 심함읍 남악로 250번길 59-30
시그니티 오양병원 1층 최신시설 완벽 친절·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 영가제공
☎ 061)285-0444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점문길 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추천합니다.
☎ 061)337-7712, 010-5288-3257

석당화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향촌
서구 상무화원로 32번길 29-3(치평동)
한우, 생선, 닭, 돼지, 양념갈비, 대패삼겹살, 육회비빔밥, 계육볶음, 김치찌개, 냉면
시골떡국, 단체손님환영
☎ 062)371-0583, 010-3947-0005

김동일쉐프
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무소입구 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곰장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임환영
☎ 062)228-1975, 010-9622-8938

광명천막기업
북구 천변우로 285-1(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파라솔, 자바라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

자동차 밧데리 할인마트
북구 자미로12(신안동128-7번지)
무료출장
☎ 062)252-1119, 010-9881-2922

천을귀인
동구 필문대로 191번길 19 (산수동)
공전타로, 인생심리상담, 사주명리학
타로 배우실분 신청하세요!
☎ 010-7186-6894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따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
북구 운암동 남양휴튼2차상가 2층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평 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 062)511-3388

유가네한우곰탕 광주대인점
동구 대인동 324-18번지
30년전통 깊은 진한 곰탕의 맛!
한우맑은곰탕, 한우사골순대국, 한우사골설렁탕
한우육수 육개장 '모든메뉴 포장가능'
☎ 062)464-1425

연아불교용품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 261-1 (영산포구역전원)
불교용품, 무속용품 모든것
조상웃. 양초 판매
☎ 061)334-0088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